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아주 높은 편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취업이 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중에는 일부러 졸업에 필요한 서류나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 일부러 졸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학기 등록금을 더 내지 않아도, 한 학기 더 학생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일부러 졸업을 안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부러 논문을 안 내는 방식으로 졸업을 연기하자, 논문을 안 내더라도 졸업을 연장하려면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 3,2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Kaynak: 뉴스로 한국어 공부하기, News in Korean, Talk to me in Korean, Long Tail Books,2015, s: 41

Konu ile İlgili Sözcükler

- 고등학생
- 졸업을 하다
- 진학하다
- 비율
- 취업
- 등록금
- 신분
- 학생 신분으로 새활하다
- 반발
- 연장하다
- 규정

Tartışma Soruları

- Kore'de mezuniyet sonrası iş bulma durumu (İşsizlik oranları)
- Gençlerin üniversite sonrası için planlamaları
- Üniversiteden mezun olmayı geciktirme sebepleri